

2005학년도 6월 평가원 어부단가 작품해설

고전 시가

이등에 시름업스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이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두고  
 인세(人世)를 다 니젯거니 날가는 줄몰 안가

구버는 천심녹수(千尋綠水) 도라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홍진(十丈紅鹿)이 언매나 마렛논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허거든 더욱 무심(無心)허애라

청하(靑荷)에 바질 싹고 녹류(綠柳)에 고기게여

노적화총(蘆荻花叢)에 비 띄야 두고  
 일반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니 부니 아락실고

산두(山頭)에 한운(閑雲)이 기(起)허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이 비(飛)이라  
 무심(無心)코 다정(多情)허니 이 두 거시로다  
 일생(一生)에 시르물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장안(長安)을 도라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니즌스치 이시라  
 두어라 내 시름 안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업스랴

※ 핵심 정리

지은이 : 이현보  
 연대 : 조선 중종 때  
 갈래 : 평시조, 연시조  
 성격 : 강호한정가, 자연친화적  
 제재 : 어부의 생활  
 주제 : 자연을 벗하는 풍류적인 생활, 자연에 은거하는 어부의 생활  
 화자의 정서와 태도 : 자연 속에서 유희자적하는 태도  
 표현 : 한자어가 많고, 정경 묘사가 구체적이지 않고 관념적임  
 의의 - 효종 2년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에 영향을 끼쳤다.  
 기타 - “어부가(漁父歌)”는 일찍이 고려 때부터 12장으로 된 장가와 10장으로 된 단가로 전해져 왔는데, 이현보가 이를 개작(改作)하여 9장의 장가, 5장의 단가로 만들었다.

- 1장  
자연에 묻혀 살기를 소망 - 세상사를 잊은 어부의 한가로운 생활
- 2장  
자연에 몰입하는 심정을 그림 - 속세를 떠나 자연과 더불어 사는 유희자적한 삶
- 3장  
자연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이 적음을 탄식
- 4장  
한가롭게 지내고 싶은 소망을 그림 - 자연에 몰입하는 즐거움을 추구함
- 5장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

※ 내용연구

이중예(이 세상에) 근심걱정(시름) 없는 사람은 어부의 생애로구나  
 일엽편주(나무잎사귀 만한 작은 배)를 만경창파에 띄워두고  
 인간세상을 다 잊었거니 세월 가는 줄을 알 것인가.

굽어보면 천 길이나 되는 깊은 푸른 물, 돌아보니 만 겹이나 첩첩이 쌓인 푸른 산  
 10장(1丈)은 10척(尺) 1척은 30cm입니다)이나 쌓인 속세의 먼지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가려져 있는가?

강호에 달 밝으니 더욱 인간세상의 부귀공명에 뜻이 없어서 무심하여라.  
 푸른 연잎에 밥을 싸들고, 푸른 버들가지에 물고기를 꿰어  
 갈대꽃 우거진 곳에 배를 매어 두고 한가로이 노니니

이러한 맑은 마음으로 노니는 흥취를 어느 분이 아실 것인가?  
 산머리에 한가로운 구름이 일고, 물위에 흰 갈매기 나는구나  
 무심한 듯 하지만 실로 정이 많은 것은 이 두 가지 것이로다

일생(내 한평생)에 시름을 잊고 너와 함께 놀겠노라  
 서울을 돌아보니 경복궁이 천리나 멀리 떨어졌구나  
 고깃배에 누워 있다면들 (서울의 정치계와 임금)을 잊은 때가 있을 것인가  
 두어라(아무 뜻 없는 감탄사) 내가 근심할 바가 아니로다, 세상을 건져낼 명재상과 신하들이 없을 것인가?

해설

漁父歌(어부가)는 일찍이 고려 때부터 12장으로 된 장가와 10 장으로 된 단가로 전해져 왔는데, 이현보가 이를 개작하여 9장의 장가, 5장의 단가로 만들었다. 농암의 어부가는 한 자어가 많고 부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결점을 지녔으며, 정경의 묘사도 관념적이다. 후에 고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 영향을 준다.

생업을 떠나 자연을 벗하며 고기잡이하는 풍류객으로서 漁父[가어웅(假漁翁)]의 생활을 그린 이 작품은, 우리 선인들이 옛부터 요산 요수(樂山樂水)의 운치 있는 생활을 즐거움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자연 속에 묻혀 은일을 즐거웠을망정 마음속에는 인간사(人間事)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니, ‘인세(人世)를 다 니젯거니’와 ‘니즌 스치 이시랴’라 한 것은 임금에 대한 충성을 표현한 것으로 애국 충정을 나타낸 것이다. 정경의 묘사나 생활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나타냄이 없이 ‘千尋綠水(천심녹수), 萬疊靑山(만첩청산)’과 같이 상투적인 용어를 구사하여 관념적으로 어부의 생활을 그리고 있다.

(가) 이 중에 시름 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片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굽어보면 천심(千尋) 녹수(綠水) 돌아 보면 만첩(萬疊) 청산(靑山)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 만경파(萬頃波) : 넓은 바다 물결.  
\*\* 홍진(紅塵) :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제세현(濟世賢) :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인재.

- 이현보, 어부단가 -

(나) ㉠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 한 다  
나는 그 독이 섣뚱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 안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억만세대(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데!'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데!'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상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  
귀우라 내말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 김명랑, 독(毒)을 차고 -

(다) 지상(地上)에는  
아홉 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깁에는  
아니 어느 ㉡ 시인의 가정에는  
알 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文數)가 다른 아홉 켤레의 신발을.

㉢ 내 신발은  
십구문반(十九文半).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어나  
육문삼(六文三)의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壁)을 짜올린  
여기는  
지상.

㉣ 연민한 삶의 길이어.  
내 신발은 십구문반(十九文半).

아랫목에 모인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십구문반(十九文半)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 박목월, 가정(家庭) -

38. (가)~(다)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점]

- ① 그리움의 정서가 들어 있다.
- ②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인다.
- ③ 시적 화자가 대상을 관조하고 있다.
- ④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을 보여 준다.
- ⑤ 대상에 대한 비판적 어조가 나타나 있다.

39.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공간의 대비가 드러나 있다.
- ② 어부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 ③ 마지막 연에서 복잡한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속세와의 거리감을 수(數)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⑤ 마지막 구의 '제세현(濟世賢)'에서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40. (가)와 <보기>의 작가가 만나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가정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어와 저물어 간다 연식(宴息)\*이 마땅토다  
배 붙여라 배 붙여라  
가는 눈 뿌린 길 붉은 꽃 흩어진 데 흥(興)치며 걸어가서  
지국총(至菊叢) 지국총(至菊叢) 어사와(於思臥)  
설월(雪月)이 서봉(西峰)에 넘도록 송창(松窓)을 비껴 있자.  
\* 연식(宴息) : 편안하게 쉬.

- 윤선도, 어부사시사 -

- ① 윤선도 :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시를 보면 푸른색, 흰색 등의 시각적 이미지가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 ② 이현보 : 윤 선생님의 시에도 흰색과 붉은색의 색채 대비가 분명하던데, 제가 잘못 읽었나요?
- ③ 윤선도 : 저는 이 선생님처럼 어부를 등장시키고, 대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을 나누어 보려 했지요.
- ④ 이현보 : 윤 선생님은 흥(興)이라는 정서를 끌어냈는데, 저는 아직도 무심(無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⑤ 윤선도 : 이 선생님의 시에 나타나는 '없으니', '잊었거니', '더욱', '없으랴' 등의 시어에서 그런 마음을 엿볼 수 있군요.

- 38. ⑤
- 39. ②
- 40. ⑤

(가) 차디찬 아침 이슬  
 진주가 \* 빛나는 못가  
 연꽃 하나 다복히 피고  
 소년아 네가 났더니  
 맑은 낮에 깃들여  
 박꽃처럼 자랐어라  
 큰강 목놓아 흘러  
 여울은 흰 돌쪼머다  
 소리 석양(夕陽)을 새기고  
 너는 준마 달리며  
 죽도(竹刀) 저 곧은 기운을  
 목숨같이 사랑했거늘  
 거리를 쫓아다녀도  
 분수(噴水) 있는 풍경 속에  
 동상답게 서 봐도 좋다  
 서풍(西風) 땀을 스치고  
 하늘 한가 \* 구름 뜨는 곳  
 희고 푸른 즙음을 노래하며  
 노래 가락은 흔들리고  
 별들 춤다 얼어붙고  
 너조차 미친들 어떡하  
 - 이육사, 소년에게 -  
 \* 진주: 진주인가.  
 \* 한가 : 가장 끝 부분.

(나)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할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별받는 자세로 서서  
 아 별받은 몸으로, 별받는 목숨으로 기립하  
 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 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어로 -  
 (다)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굽어보면 천심(千尋) 녹수(綠水) ㉢돌아보니  
 만첩(萬疊) 청산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청하(靑荷) \* 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蘆荻) 화총(花叢) \* 에 배 매어 두고  
 일반(一般) 청의미(淸意味) \* 를 어느 분이 아실까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無心)코 다정한 이 이 두 것이로다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쫓아 놀리라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 \* 이 없으랴  
 - 이현보, 어부단가 -  
 \* 청하: 푸른 연잎.  
 \* 노적 화총: 갈대와 물억새의 덩굴.  
 \* 일반 청의미: 자연이 주는 참된 의미.  
 \* 제세현: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선비.

2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 ②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③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 세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사물의 속성을 인간의 삶과 대비해 가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구도적인 자세를 통해 사물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23. (가)와 (다)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다)에 비해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 ② (다)는 (가)에 비해 음악적 리듬감이 두드러진다.
- ③ (다)는 (가)와 달리 대구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 ④ (다)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 ⑤ (가)와 (다) 모두 영탄의 어조로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26. (다)의 ㉢와 ㉣를 중심으로 (다)를 <보기>와 같이 정리하여 감상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대상	대상의 심상	화자의 태도
㉢ 돌아보니	청산	월백	더욱 무심하여라
㉣ 돌아보니	장안	홍진	잊은 때가 있으랴

- ① '만첩'은 ㉢와 ㉣의 대상 간의 단절을 강조하는 시어이다.
- ② '월백'은 '홍진'과 대비되어 강호 공간의 청정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부각한다.
- ③ ㉢는 '더욱 무심하여라'와 연결되어 강호 공간에서 화자가 추구하려는 자기 절제의 내면세계를 드러낸다.
- ④ ㉣는 '잊은 때가 있으랴'와 연결되어 강호 공간에서도 버릴 수 없었던 정치적 이상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다.
- ⑤ ㉢와 ㉣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던 화자가 선택한 최종적인 삶의 방향은 ㉣의 대상이다.

- 21. ㉔
- 23. ㉒
- 26. ㉑

